

무섭다, 서민물가

설탕값 오르며 '도미노 인상' 부추겨 배추·상추값 등 한달새 배 이상 급등

서민 물가가 들쭉이고 있다. 이미 '금값'이 돼버린 채소에 이어 가공식품의 필수 원료인 설탕값이 오르면서 빵과 음료수·과자·햄 등 관련 가공식품의 도미노 가격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비와 교통요금 등도 곱불거려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한국물가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채소 가격은 잦은 비로 인해 '금값'이고, 설탕값 인상으로 관련 가공식품 가격마저 들쭉이고 있다.

광주지역 배추(2.5kg) 가격은 이날 현재 2천980원으로 지난달 1천480원보다 한달새 2배로 경증 뛰었다. 상추(100g) 가격의 폭등은 더 심해 지난달 530원이던 것이 무려 142% 올라 1천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풋고추(1kg)도 7천200원으로 한 달 사이 1천200원이 올랐다.

닭고기(육계 1kg)는 6천980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10% 올랐고, 배(600g)도 3천280원으로 전월보다 36% 오른 시세를 보이고 있다.

설탕값 인상도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국제 원당 가격 급등을 반영해 오는 17일부터 설탕 가격을 평균 8.9% 올리기로 했다. 원당은 지난 11일 현재 t당 2천964 달러로 작년 9월15일에 비해 63.57% 올랐다. 가공식품의 필수 원료인 설탕 가격이 오르면 빵과 음료수, 과자 등 관련 식품 가격의 돌진상이 불가피하다.

대두 가격도 크게 상승해 식용유, 콩류 제품 가격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비도 심상치 않다. 일단 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가격이 자율화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이미 14.5% 인상됐다.

가뜩이나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는 학원비도 우려 대상이다. 최근 법원은 사교육 경감대책의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인 수강료 상한제 운영방식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광주의 경우 시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한 학원수강료가 너무 낮다는 지역 학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어 학원비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광주의 적정 수강료는 타 시·도의 60% 수준으로 지난 3년간 동결돼 왔다.

의류비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남성용 속옷 상의가 지난해 말보다 15.2% 올랐고, 남성용 속옷 하의 14.7%, 남성 재킷 12.4%, 여성 학생복이 8.9% 상승했다. 세탁비누도 11.0% 올랐다.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 11일 배럴당 71.72 달러에 거래돼 작년 12월26일 34.66 달러에 비해 두 배가 됐다.

이에 따라 항공요금도 다음 달부터 국제선 왕복 기준으로 최대 5만7천원 오른다. 6개월 만에 유류할증료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3천300원에서 4천원대로 오를 전망이다.

연료비 상승도 가파르다. 광주지역 휘사용 도시가스 가격은 m당 713원으로 지난 5월 675원보다 38원 올랐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값도 l당 1천649원으로 3개월 사이 122원 상승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첫 벼 수확... 들녘은 벌써 가을 13일 순천시 해룡면 선월마을 3천㎡ 규모의 허만재(51)씨 논에서 전국 첫 노지 벼베기 행사가 열렸다. 순천 해룡면 118 농가에서는 관행보다 한 달여 앞서 햅쌀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순천=위정림기자 jrwi@

137일만에 돌아 왔다

北 억류 유성진씨 귀환

지난 3월30일부터 북한에 억류돼 있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44)씨가 13일 전격 석방됐다. 억류된지 137일만이다. <관련기사 3면>

전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현대아산측이 오후 5시10분 유씨 신병을 인도했고 5시20분경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유씨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이날 오후 7시10분경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해 입경 수속을 밟았다.

유씨는 이날 오후 6시50분경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과 함께 개성을 출발전 남측 CIQ에 도착한 뒤 건강검진과 당국의 약식 심문을 받았다.

개성공단에서 숙소 관리 업무를 하던 유씨는 3월30일 오전 개성공단 현지에서 북측 당국자들에 의해 체포된 뒤 그간 변호인 접견 등을 하지 못한 채 억류돼 왔다.

조사개시 후 북측은 5월1일 개성공단 감독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

국(이하 총국) 대변인을 통해 유씨가 "(북한) 체제를 약외에 차서 협동하면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며 처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북 중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북한 체류 일정이 하루 더 연장됐다.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은 13일 오전 9시45분경 개성 방북을 위해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한 뒤 "현 회장의 체류가 하루 더 연장됐다"며 "관바로 통일부에 연장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북한으로 들어간 현 회장은 원래 2박3일 일정을 계획했으나 연거푸 2차례에 걸쳐 하루씩 연장해 총 체류일은 4박5일로 늘어나게 됐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여부 및 남북관계 개선 조치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대도 내년부터 입학사정관제

2011학년도 전형 발표

현재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내년부터는 전문대학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자대 총장)는 13일 전문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2011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최근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전문대에

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전문대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전문대협 관계자는 "올해 2010학년도에 경우 계명문화대, 영진전문대, 백석문화대 등 3곳에서만 입학사정관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형일정은 수시와 정시로 구분하되 추가모집은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고 정시모집 기간에 대학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실시하도록 했다.

수시모집은 2010년 9월8일부터 12월7일까지, 정시모집은 2010년 12월17일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다. /연합뉴스



나로호 19일 발사 이상없나

조립 상태·설비 등 현장점검

우리나라 첫 우주로켓 '나로호(KSLV-1)'의 발사가 오는 19일로 다시 결정됐다. 하지만 이미 여러가지 이유로 6차례나 발사가 연기된 바 있어 이번에는 우주로 쏘아 올려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나로호는 애초 지난 7월30일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측이 1단 로켓 연소시험을 연기하면서 8월 11일로 연기됐고, 시험 후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불거

지면서 한차례 더 연기됐다. 이로써 모두 6차례 발사가 지연됐다.

뿐만 아니라 19일 발사 일정이 발표되기 직전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나로호에 장착될 1단 로켓과 러시아에서 연소 시험을 실시한 로켓의 종류가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러시아 흐루니체프사 등의 발표자료나 홈페이지에는 'RD-191'에 대한 시험일정만 나와 러시아가 나로호에 실릴 엔진 'RD-151' 대신 자국의 최신 엔진 'RD-191'의 연소시험을 수

행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러시아로부터 접수된 공식 문서를 공개하며 "지난달 30일 진행된 연소시험은 우리 발사체에 장착된 'RD-151' 엔진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나로호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발사일을 기다리고 있지만 당일 준비상황과 기상조건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26일까지를 발사 예비일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교과부는 나로호의 발사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3일엔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이날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준비가 한창인 조립동, 발사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발사체 총조립 상태와 발사설비 준비 등을 확인했다. 교과부는 또 최근까지 10여 차례 개최된 발사준비 검토위원회를 '발사상황 관리위원회'로 개편, 본격적인 발사 준비에 착수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